

<감염병 보도, 어떻게 했고 무엇을 해야하는가? 솔루션저널리즘의 제언> 토론문

박주연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코로나 19 이전에도 정보 자체가 전염병처럼 대량확산되는 허위정보 인포데믹 문제가 떠올랐는데, 논문에서 제시한 솔루션 저널리즘이 전반적으로 뉴스의 신뢰도 제고 방안으로 기여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위기의 시대 코로나19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 분석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일은 중요하고 필요한 일임을 확인시켜 준 논문이다. 논문에서 코로나19 관련 언론보도 현황 분석을 통해 감염병에 대해 언론이 스스로 어떻게 보도했고, 어떻게 보도해야 할지를 제시하고 있

제시하지 못하는 정보가 쏟아지는 환경에서 시간과 인력과 비용이 수반되는 솔루션 저널리즘을 실천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탐사저널리즘처럼 솔루션 저널리즘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있는 전통 저널리즘 레거시 미디어들의 경영적 환경이 어렵다. 전문 저널리즘 신문사 및 방송사의 경쟁환경뿐만 아니라 현재 언론이 가지고 있는 정파성 및 편파성으로 인해 이들이 생산한 뉴스에 대한 언론 수용자의 불신도 크다.

전문가 취재원, 데이터 분석 기반의 심층 보도가 필요한 솔루션 저널리즘이 속보 경쟁과 오보 등 한국언론의 정파성과 한국 저널리즘의 문제점, 언론 생산 관행 현실과 기술과 결합된 온라인 기반 정보 뉴스 생산 관행을 극복하고 실천하는 문제는 현실에서 쉽지 않으리라 판단된다. COVID19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언론 보도의 맥락성과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는 현실에서 편향적 보도와 언론 수용자의 정치적 성향이 맞물리면서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성과 심각성 인식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이번 코로나19 관련 보도의 프레임 분석에서도 이와 같은 점이 확인되었다. 전문적 저널리즘 원칙이 지켜지고 맥락성과 투명성이 수반되는 기본적인 사실적인 뉴스를 제공하려는 언론사의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문성과 심층성 기반의 솔루션 저널리즘이 수행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솔루션 저널리즘 역시 전문성, 품질, 저널리즘 수행 준칙 사실성과 관계된 일이다. 언론인 뿐 아니라 언론사의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언론에서 솔루션저널리즘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솔루션 저널리즘이 오보를 할 경우 그 여파는 더욱 클 것이다. 솔루션저널리즘 기사와 다른 기사에 대한 내용분석 연구가 필요하다. 저널리즘이 주로 해석적 저널리즘 기반으로 맥락과 투명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솔루션 저널리즘의 기준이나 개념이 좀 더 명확해지면 좋으리라 판단된다. 팩트체트처럼 저널리즘의 준칙들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 어떤 영역이 솔루션 저널리즘이 특히 필요한가 등 솔루션저널리즘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식, 팩트체커 레퍼런스 등 이를 판단하는 주체나 방식도 중요하다. 솔루션저널리즘의 솔루션은 누구를 위한 솔루션인가? 라는 문제에 대한 답변이 좀 더 명확해지면 좋겠다. 또한 언론인을 대상으로 솔루션저널리즘에 대한 인식 및 왜 안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결과들이 도움이 될 것이다. 솔루션 저널리즘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를 비교 분석하여 제시하면 실제에 대한 좋은 연구결과가 되리라 판단한다. 마지막으로 이용자 대상 솔루션 저널리즘 반영된 기사와 다른 기사 간 효과성과 신뢰성, 차이성 연구조사도 향후 솔루션 저널리즘의 정착과 실천에 도움이 되리라 판단된다.